

살아가는 동안 4년이라는 기간동안의 의정활동은 제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합니다. 다시 입성하는 4대의원님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당적과 지역적인 연고, 어떤 정실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마감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당이라는 미명 아래 비수를 휘두르는 자의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들하고는 별로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여러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정당의 한 사람으로서 충실히 일해왔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몸담았던 민주당의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충실히 당원 동지과 위원장님을 모셔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5월29일 자진 탈당이 아니고 제명이라는 내용중명 하나로 나는 당원으로서 모든 생활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우리 정당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사슬에 매여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정을 못 받아서 다른 당으로 갔던 사람들이 거의 전부다 당선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만 봅시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제가 존경했던 의장님을 물리치고 내전을 받았던 그 후보자는 등록조차 하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해 봅시다. 또 내전을 받았던 자가 내전을 못 받은 자에 밀려서 저 멀리 사라졌다는 사실을 명기해보십시오. 여러분! 4대 원구성이나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정당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역적인 정실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월드컵의 그 열기를 말입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모두 하나되어서 발전할 수 있고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월드컵은 이제 정당과 지역을 모두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저보다 모든 것이 탁월하셨기 때문에 제 4대에 다시 입성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4년 동안 여러분들과같이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님들과

의장님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못했던 책임으로서 여러분들 지역적인, 정당적인 갈등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중구민을 위해서 중구 발전을 할 수 있는 길로만 매진해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4대 임기를 마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漢 정희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11時15分)

○議長 金榮漢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3일 동안 집회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議 事 日 程(案)

제95회중구의회(임시회)2002.6.26(수)~2002.6.28(금)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2.6.26 (수) 11:00	0.개회식	제 1 차 본회의
	1.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의사일정결정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본회의휴회의건	
2002.6.27 (목) 14:00	[행정·복지위원회] 1.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휴 회 (상임위)
2002.6.28 (금) 11:00	1.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 2 차 본회의